

# 환불원정대 '돈 터치 미' 내달 10일 데뷔

### '놀면 뭐하니' 음반 내고 출격... 라도 작곡

'환불원정대'가 작곡가 라도의 곡 '돈 터치 미(Don't touch me)'를 활동곡으로 정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신박기획 대표 지미 유(유재석)가 환불원정대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화사)가 첫 스케줄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미 유는 작곡가를 미리 공개하지 않은 채 블랙아이드필승 라도가 작곡한 'Don't touch me'를 들려줬다. '톱100위' 지미 유는 'Don't touch me'를 처음 들었을 때, 흥을 감추지 못하며 대중성을 확인했다.

이 노래는 환불원정대 멤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곡을 들은 후 곡을 인정하며 타이틀로 받아들였다.

만옥, 천옥, 은비, 실비는 "이 노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짜증난다"면서도 활동곡 투표에 만장

일치 표를 던졌다.

이 곡은 현재 멜로디만 나온 상태다. 멤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목에 걸맞은 가사 작사, 최종 녹음을 거쳐 대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미 유는 "안무도 아는 동생에게 맡겨놨다"며 "안무가 나왔는데 혹시 나 마음에 안 들면 면전에서 내 따기를 때려도 된다"고 말하며 안무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환불원정대의 공식 첫 스케줄은 단체 프로필 촬영이었다. 지미 유는 멤버들을 데리고 사진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미 유를 비롯해 만옥과 천옥의 본게 시절 과거 모습이 물론 봉원의 모습도 남겨져 있었다.

카메라앞에 선 환불원정대 멤버들은 개인 촬영과 단체 촬영을 진행하며 마치 패션 화보에 임하듯이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미 유는 단체



티셔츠를 준비해 매니저들, 환불원정대와 유쾌한 단체 촬영도 진행했다. 이후 TV추석인사 촬영이 이어졌다. 지미 유는 방송계 인맥을 통해 어렵게 스케줄을 잡았다고 으스스했다. 걸그룹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한 환불원정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스케줄에 임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촬영에서는 NG가 연발됐다. 첫 시작부터 멘트를 가로채는 멤버가 등장하는가 하면, 멤버들은 말이 꼬이는가 하면 몸개그를 해 보이기도 했다. 환불원정대는 다음달 10일 음원을 발매할 예정이다. /뉴스

## '국제수사' 광도원 "눈 호강할 영화"

### 화상 기자간담회...코로나로 두차례 연기 내일 개봉

"작품마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보고나면 항상 후회한다"

광도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국제수사'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코미디 연기는 어렵다"며 "더 도전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수사'는 광도원이 처음으로 코미디에 도전한 영화다. 난생 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글로벌 범죄에 휘말린 춘구석 형사의 현직 수사사이다. 광도원 김대명 김상호 김희원등 영화계 신스틸러들이 총출동한다.

광도원은 필리핀으로 인생 첫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현지에서 셋업 범죄에 휘말린 후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춘구석 형사 '병수' 역을 맡았다. 김대명은 벗기 수사 파트너가 된 현직 관광 가이드 '만철' 역을 연기했다. 광도원은 김대명과 콤비 호흡에 대해 "극 중 동네 선후배 사이다. 후배이자 동생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배우"라며 "준비를 참 많



이 하는 배우고, 함께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국제수사'는 코로나19로 여러차례 개봉이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배우들은 '국제수사'를 즐길 수 있는 관련 포인트도 전했다.

광도원은 "개봉하기까지 오래 걸렸다"면서 "불거리가 많은 것 같다. 눈이 호강할 수 영화"라고 말했다.

'국제수사'는 오는 29일 개봉한다. '보통사람' 등을 연출한 김봉한 감독 신작이다.

## 전진 승무원 연인과 결혼

### 신화 두번째 '품절남' 합류

그를 신화의 전진이 3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전진은 27일 3살 연하 승무원 예비신부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된다. 5월 전진이 결혼 발표를 한지 4개월 만으로, 예식은 가족과 지인들만 불러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다.

두 사람은 당초 지난 13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했다.

이들 부부는 전진의 후배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은 미모와 인성을 겸비한 예비신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전진은 지난 5월 공식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결혼 소식을 알렸다. 전진은 "어릴 적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던 저에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앞으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보이스트롯' 우승 박세욱...추석에 다시 만나요

### 내달 1·2일 추석특집



25년차 무명 배우였던 박세욱이 MBN '보이스트롯'의 1회 우승자가 됐다.

25일 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서는 약 8개월 동안 이어진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결승전이 치러졌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비대면 무관중 무대가 펼쳐졌고, 여기에 출연자 대기실과 전문평가단 40인을 번갈아 보여주는 삼원 중계로 진행됐다.

결승전은 TOP 10 '뽕까마린' 홍

'트로트 꽃미남' 박세욱, '불사조' 추대엽, '트로트 원판남' 박상우, '꺾기 고수' 박광현, '가요제 대상 출신' 문희경이 톱10으로서 결승전 무대에 올랐다. 2700점 만점으로 박빙의 대결을 벌인 끝에 박세욱이 2539점으로 1위를 거머쥐었다.

25년차 무명 배우에서 '보이스트롯'으로 트로트 가수로 거듭난 박세욱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하실 것 같다. 감격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보이스트롯'은 오는 10월 1일, 2일 오후 5시 30분에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 이시연 "2억짜리 시계... 제 것 아닙니다" 해명

배우 이시연이 자신이 착용한 고가 시계가 화제를 모으며 "제 것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시연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박나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나래이션. 벌써 추억이 되어버린 하동. 다들 마스크 꼭 착용 하시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계 이야기 많으신데 제 것 아닙니다. 2100년도 구입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시연은 "#시계내거야님 #신기해서차봄 #제거라고해주시분들감사합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25일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이시연은 손목에 초고가 명품 시계 브랜드 제품을 차고 나와 화제가 됐다. 해당 시계의 가격은 1억원이며, 실거래가는 2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라디오쇼' 박명수, GD에 러브콜

개그맨 박명수가 그룹 '빅뱅' 지드래곤에게 다시 한 번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냈다.

박명수는 26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자신과 지드래곤이 MBC TV 예능물 '무한도전'을 통해 함께 작업한 '바람났어'가 흘러나오자 "지드래곤, 다시 하자"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모른다. 우리 동네에 사는데 한 번도 본적 없다"며 "후배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회할길 기대해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영화 '테넷' 박스오피스 1위 재탈환...160만 돌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이 개봉 31일차에 다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26일 영화인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따르면 '테넷'은 지난 25일 1만66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관객수는 160만8290명으로 160만명 관객을 돌파했다. 아이맥스(IMAX) 상영관의 경우

신작 개봉으로 추소 상영됐다가 이번주부터 추가 확대돼 상영에 돌입했다.

'테넷'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다. 시간을 거스르는 '인버전'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동시에 협공하는 미래 세력에 맞서 시간을 이용하는 작전을 펼친다.

주식회사 동공테크  
Dong Kong Tech Co.,Ltd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 태양광 LED표지병

태양전지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 배터리를 충전하였다가  
일몰이나 우천으로 인하여 주위의 밝기가 일정조도 이하로 어두워지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LED전구가 발광 하는 시스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조명광원, 별도의 전원없이 설치가 간편, 반영구적으로 사용, 야간에 우수한 발광과 반사기능

### 설치장소

- ☑ 도로여건상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
- ☑ 차선의 감소, 분리, 합류, 교차로부 시인성 향상 구간
- ☑ 항만, 부두, 군사시설, 작전지역 위험 경계표시
- ☑ 기상변화가 많은 해안도로 및 안개지역
- ☑ 자전거도로, 노건선, 버스전용차선, 안전지대, 고속도로 하이패스구간, 휴게소 진입로, 아파트 및 주차장 진입로

#### 태양광 LED표지병(DK-S119)

규격: φ 119×52mm  
발광색상: 황색, 흰색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점등방식: 점등형, 점멸형  
조명방식: 태양광/LED  
조달청 식별번호: 23595317(흰색)  
23595318(황색)

#### 도로 표지병(DK-R120)

규격: φ 120×30mm  
발광색상: 황색, 흰색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조명방식: 반사형  
조달청 식별번호: 23421121  
용도: 도로 중앙선, 차선경계선 등

# Tel (061) 323-555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길 14-162  
FAX. (061) 323-3144  
E-MAIL. 0613235551@hanmail.net